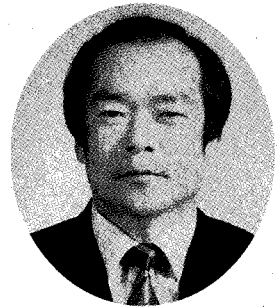


낙농가들이 믿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낙농진흥회가 되길 바란다.

낙농가는 좋은우유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그러기에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으로
분투할때 우리낙농가는 진흥회를 믿고 신뢰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낙농가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순택
남양예산낙농회장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송아지, 그 울음소리가 낙농인들의 마음을 울린다.

치솟는 환율, 하루가 멀다하고 사료값은 오르고, 유업체의 부도, 우유의 소비둔화 참으로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서로 얽혀있는 경제구조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작은 틈을 보이고 어느새 그 파장은 걸잡을 수 없이 파행길로 접어들고, 그 와중에 업친데 덮친격으로 곡물값이 치솟아 낙농가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우유소비 침체로 유업체에서는 우유를 집유하지 않거나 유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더라도 유대값의 일부를 분유로 대처하는 등, 업체에서는 그 고통을 납유농가들에게 떠넘기기 일수였다.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낙농가들은 눈물을 머금고 축산을 포기하여야 했다. 더욱더 안쓰러운 것은 소값마저 사경을 헤메 소를 처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

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값 안정과 우유과잉 현상을 막기위해 송아지 구매 정책 및 저능력우 도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능력우 도태 시 '99년도 부터 시행하려 했던 원유 정량제에 가산 점수를 주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방법들이 어느 정도 소값 안정에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량제 실시가 얼마나 형평성있게 시행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낙농여건에서 정량제 도입이 이르지 않나 싶다. 그리고 '99년부터 낙농진흥회 주관으로 집유 일원화를 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될까?

의구심뿐이다. 항간에는 낙농진흥회가 아직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말만 앞서고 유업체와 진흥회간의 기득권 주장이나 한다는 등 정말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낙농가에게 안정적인 우유생산 기반과 공정한 우유검사 실시, 그

리고 우유의 등급별 집유관리, 이런 것들이 진흥회의 목적임을 낙농가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낙농가는 바란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꿈처럼 보여지는 것일까?

며칠전 농민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일부 유업체에서 생산농가와 납유계약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업체 단독으로 집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진흥회와 타협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유부족시 진흥회에서 유업체에게 어떻게 원유를 할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사실 유업체에서 낙농가와 계약을 하는 사례가 우리주변에도 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있을 원유 집유일원화가 진흥회 주관하에 추진되어 질수 있을까?

낙농가는 좋은우유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진흥회는 유업체와 낙농가의 중간위치에서 낙농가

를 대신해 유업체와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유업체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우유가공 및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 할때 우리 낙농산업은 온전

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으로 분투할때 우리나라농가는 진흥회를 믿고 신뢰

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낙농가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모든 승객들로부터 환영받는 낙진호로 출항하기를 바란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아주 평범한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다소 출발이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닻을 올려 모든 승객들로부터 환영받는 낙진호가 힘차게 고동을 울리며 출항하기를 바란다.



김정대
경기 김포 삼마목장

오랜 진통 끝에 낙농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어 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축산 정책은 축산인을 위하여 수립되어 왔지만 많은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 수명이 짧고 부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현장을 외면한 채 책상에서 상상의 그림을 구상하고 채색하다 보니 동양화를 그리려고 계획한 그림이 서양화가 되어 버린 웃지 못할 일이 종종 벌어져 왔던 것이다.

낙농진흥회가 설립된다고 해서 우리 앞에 그 동안 산적되어온 낙농현안의 많은 문제점들이 하루 아

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초기에 낙농진흥회를 설립하려 하던 때와 지금의 우리 낙농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론 몇몇 선진 낙농국에서는 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낙농여건에 완벽히 맞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선진 낙농국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단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한 모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을 우리 낙농에 관계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해 왔던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낙농진흥회의 출발과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보자.

1999년 1월 1일부로 출범한다

는 낙농진흥회가 과연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 인선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걸로 안다. 선체가 완성되었다고 그 배가 승무원, 승객없이 선주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있을까?

설사 항해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예비 운항을 통하여 실제 운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점검한 후에 정식 운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출항을 앞둔 선주의 의무라고 본다. 이러한 예비 상식을 무시하고 운항을 결행했을 때의 결과는 눈앞의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또 우리 승객들 역시 지금 당장의 실익을 떠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라 인정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저없이 함께 승선해야 옳은 태도이다.